아브라함 동선과 다윗 동선의 통합영성

(역대상 2:1~55)

1.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과
2.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3.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 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4.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5.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6.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7.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8.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 동선과 다윗 동선의 통합영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아브라함 동선과 다윗 동선의 통합영성'

동선은 움직임의 흔적이나 방향을 나타나는 선으로서 예수님의 동선을 이야기할 때 반복했던 단어입니다. 이 동선과 관계하여 역대기가 족보를 기록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 이르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이것이 구약 역사의 목적입니다. 이 역사의 진행에서 일정부분 연결을 완성시키는 징검다리의 역할이 포로귀환 세대의 사명임을 자각시키려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 이르는 역사에서 유다가 BC586년에 멸망하고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500여년의 세월이 남았는데, 이 포로귀환 세대들이 세월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중간 역사를 잇는 교량역할을 위해서 선민의 구약 역사가 반드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도달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용적인 이유를 알아야 사명자로서의 동기 부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르게 되는가를 알 때에, 이 징검다리 역할도 사명의식이 충만하여 수행할 수 있는데 저자인 에스라

는 이러한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역대기를 저술한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야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선민의 나라를 새로 시작하거나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선민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이르는 선민의 역사 한 부분 징검다리 역할을 위함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장의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도달하는 족보의 중심은 아브라함이었고 오늘 2장 본문의 중심은 다윗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대까지는 개인을 선택하셔서 여호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으나, 야곱의 열두 아들의 대에는 그들 전체를 선민으로 선택하십니다.
역대기에서는 그 열두 아들 중에서 유다 족속에 집중하고, 그 중에서도 다윗의 가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으로 족보를 재구성하는 이유는 귀환한 선민들이 예수님까지의 역사에서 징검다리가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의 방향으로 동선을 그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우리에게 두드러질 정도로 하나의 뚜렷한 동선을 그려놓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그려놓은 두 동선은 예수님에 의해서 통합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다윗 동선의 통합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아브라함의 동선과 다윗의 동선이 내 안에서 통합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 족보의 중심이었던 아브라함과 2장 족보의 중심인 다윗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동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의 특징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리며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방의 왕들이 보는 족족 반했던 아름다운 아내인 사라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사를 약속하셨을 때에도 집사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려고 하였으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는 그를 후사로 삼으려고 하면서 사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자식까지도 마음에서 버립니다. 또한 롯에게 토지를 양보함으로서 그 당시로서는 기업이고 삶의 터전인 토지를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약속해 주시는 복지를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복지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1등자리에 모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아브라함의 삶은 마지막에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고 하나님께 바치려는 결단을 함으로서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성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속에서 소개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세상의 소중한 가치들에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성이자 믿음의 동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동선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등지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어떤 영성과 동선을 대표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의 안정을 버리고 떠돌이로 나서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다윗은 15살로 추정되는 소년의 나이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전 군대를 떨게 한 골리앗 전사를 물맷돌로 죽이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바침으로서 하늘을 향한 동선을 완성시키며 끝났지만, 다윗은 어느 왕도 이루지 못할 만큼 선민 나라의 위상을 전성기로 끌어올리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 경외는 동일한 것이었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점을 서로 달리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의 동선이 세상으로부터 하늘을 향하는 것이었다면 다윗의 마음의 동선은 하늘에 있음을 전제로 땅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영성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땅을 등지고 하늘을 향함으로 하나님을 갖기 위한 것이고,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선민의 나라를 최전성기로 끌어올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장갑삼아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신학적 통찰을 가지고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공히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들이었고, 그들의 영성이 완전히 달라서 서로에게 결여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이 없으면서 다윗의 영성이 나타날 수 없고, 다윗의 영성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영성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영성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영성이 선민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핵심 내용입니다. 선민의 나라는 영토나 국가체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성을 통해서 선민의 선민다움은 이어져 내려갈 수 있습니다.

족보 속에는 중심 되는 인물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서는 전혀 선민과는 관계가 없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으로 이어지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 얻은 베레스의 가계가 나오고 그 외의 다른 자손들에 대한 언급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 열두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통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왜 이렇게 나오

며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통에도 많은 사람들의 가계가 나오고 있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 다윗 외에도 유다지파 안에 많은 가계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 있었지만 오직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늘로 움직이는 영성의 동선을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르는 천년의 기간 동안 다윗 같이 하나님께서 장갑 삼으신 영성은 없었습니다. 유다지파 안에서 다윗 같은 영성의 소유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물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이 지녔던 영성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영성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이들을 배경으로 깔아 놓은 것입니다. 이들 중의 하나가 우리인데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족보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들러리처럼 이름만 거명된 사람들이 우리를 뜻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구약 역사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 같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서 인해서 들러리 같았던 나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동선과 다윗의 동선을 대표하는 영성을 통합하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인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을 젖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전체의 역사가 예수님까지 도달하는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역대기를 통하여 이 예수님께 도달하는 역사를 포로귀환 세대들이 이어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영성이 예수님으로 통합되어 선민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까지 이 역사를 끌어가야만 하고 그를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영성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영성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작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그 뒤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등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라는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선민의 단순한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서 참으로 본질적으로 깊고 깊은 신학적 통찰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선은 이 세상의 나와 한 몸이 된 아내, 내 생애의 모든 성패의 키를 붙잡고 있는 이삭, 안정됨의 우선적이고 필연적 조건인 고향 친척 아비 집도, 새로운 지역에서의 기름진 토지도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음을 알고 평생 동안 하늘을 향한 동선을 그려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아브라함이 일평생에 그렸던 이 동선을 매순간 그리며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에 대해서 죽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죽었던 것처럼 자식에 대해서 죽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내 기업과 모든 것에 대해 죽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1등 되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계시는 그 교제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갖게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동선이 그려내는 영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의 육체가 남아 있는 삶의 현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성육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와 생각 속에 내려오셔서 다윗에게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장갑삼아 그 뜻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선을 먼저 탑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음이 죽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으로서 이루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동선이 우리에게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 삼으셔서 이 땅에서 다윗에게서처럼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역대기는 미래가 안 보이는 참혹한 포로귀환의 선민들에게 메시아의 복음을 마음으로 그리게 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개인에게 미치게 될 그날까지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족보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굉장히 고맙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동선이 통합되는 놀라운 영성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